50대 배우 전도연의 로맨틱 코미디… "외모 신경쓰지 않았죠"

17년만 로코물 tvN '일타스캔들' 남행선 맡아 열연
사교육 1번지의 '일타강사' 정경호와 로맨스 연기해

국내 여배우 중 50대에도 로맨틱 코미디를 할 수 있는 이가 또 있을까 싶다. 전도연(50)은 최근 막을 내린 tvN '일타 스캔들'에서 변함없는 매력을 뽐냈다. 20여 년 전 '별을 쏘다'(2002~2002) '프라하의 연인'(2005)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였다. 특유의 애교 가득한 콧소리도 여전했다. 그동안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2020) '비상선언'(2022) 등 주로 장르물에서 활약했는데, 이번에 대중과 한층 가까워졌다. 로코는 장르 특성상 외모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지만, 전도연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주름마저도 사랑스럽게 보였다.

"다 CG로 해주지….(웃음) 그래도 약간 필터를 끼지 않았느냐. 나도 나만 아는 속도로 잘 늙고 있다. 일타 스캔들 찍을 때 많이 피곤하고 몸도 지친 상태였다. '인간실격'과 '길복순' 하고 바로 들어가서 체력적으로 힘들었다. 테스트 촬영도 못했다. 초반에 내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 그 힘듦이 내 눈에는 보였다. 그래서 '모니터를 보지 말자'고 마음 먹었고, 어느 순간 (외모는) 내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누군가 보기 불편하면 만져주지 않을까?' 싶어서 내 할 일만 했다."

이 드라마는 입시 지옥에 뒤늦게 입문한 '국가대표 반찬가게' 사장 '남행선'(전도연)과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에서 별이 된 일타강사 '최치열'(정경호)의 로맨틱 코미디다. 1회 4.0%(닐슨코리아 전국 유료가구 기준)로 시작, 16회 17%로 막을 내렸다. 가장 큰 매력으로 편안·따뜻함을 꼽았다. 행선과 치열의 로맨스는 판타지에 가까웠지만, "내 옆에 인물이 있는 것처럼 소소하고 따뜻하게 표현했다"고 짚었다. 특히 전도연은 오랫동안 로코를 하고 싶어 했는데, "주변 반응도 그렇고 나한테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본 것 같다"며 만족했다. "스스로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본지도 오랜만"이라며 "내가 보고 싶었던 모습이라서 만족한다. 내 딸과 엄마 등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작품이라서 좋았다"고 했다.

"딸이 열다섯 살이다. 일단 치열과 함께하는 신은 잘 못 본다. '못 봐주겠다'고 하더라. 행선이 사는 방식과 내가 평상시 살아가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딸이 '뽀뽀신은 왜 그렇게 야해요?'라고 묻더라.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너희 엄마가 다른 남자와 뽀뽀할 때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봤다고 하더라. 그건 '연기할 때 어떤 기분이냐고 물어보는 것과 같다'고 했다."

처음 이 드라마 제안을 받았을 때 "선뜻 오케이는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조금 비호감으로 보였고, 민폐 캐릭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행선 캐릭터가 동의를 얻지 못하면, 산으로 갈 수 있는 이야기라서 '어떻게 하면 행선을 이해하고, 그녀 삶의 방식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받아들일까?'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초반에 작가님이 생각한 행선은 더 억척스러운 아줌마였다. 나 자체가 그렇지 못해서 '조금 힘들고 버겁다'고 얘기했다. 작가님이 원하는 캐릭터가 명확해지면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이 없었다"며 "내 입으로 얘기하기 그렇지만, 러블리함은 나로 인해 행선 캐릭터가 변질된 거다. 작가님도 더 친근감있는 행선이가 된 것 같다고 좋아해줬다"고 덧붙였다.

전도연은 행선이가 되기 위해 극본이 닳도록 봤다. "어느 순간 전도연인지 행선인지가 아니라, 전도연이 행선이가 돼 있었다"고 할 정도다. "진짜 징글징글할 만큼 극본을 많이 봤다"며 "내가 말이 빠른 편이 아니라서 호흡에 치이지 않으려면, 적어도 대사가 내 말처럼 나와야 했다. 행선이 말처럼 뱉을 수 있을 때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행동 등을 생각했다"고 돌아봤다.

사교육 전쟁을 다룬 만큼 학부모로서 공감한 점도 많을 터다. 행선과 교육관이 비슷하다며 "딸 성적이 많이 올랐는데, 자기 의지가 중요하다. 공부든 무엇을 하든, 누군가 시키는 건 한계가 있다. 일거수일투족 컨트롤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느냐. 난 그런 엄마가 못 돼서 아이한테 맡기는 편"이라고 귀띔했다. "잘 하지는 못해도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했다. '최선이야?'라고 물었을 때 '최선이야'라고 하면 믿어주고 싶다"며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아이도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예전처럼 좋은 대학 나온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대학도 선택이라고 생각해 강요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 동안 전도연은 자신의 작품은 "어려울 것 같다"는 편견이 있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일타 스캔들을 통해 대중들이 친근하게 느껴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흥행 부담감과 갈증은 항상 있다면서도 "흥행 여부가 나를 어떻게 하지는 못한다"는 주의다. "일타스캔들이 엄청 흥행하고 사랑 받아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며 "단지 나 자신한테 응원 같은 것"이라고 했다.

"사실 전도연이 하는 캐릭터를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니다. 선택 폭이 넓었다면 훨씬 더 다양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사실 그런 선택이 많이 주어지지는 않았다. 내 의도는 아니지만, 대중이 좀 어려워하고 거리감이 있었던 것 같다. 일타 스캔들로 인해 편안함을 느끼는 걸 많이 체감했다. 주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더라. '그동안 내 작품 보기 힘들었구나' 싶었다. 앞으로도 이런 작품을 많이 하고 싶다."

전도연은 31일 넷플릭스 영화 '길복순'(감독 변성현) 공개를 앞두고 있다. 싱글맘 '길복순'(전도연)이 청부살인업계 전설적인 킬러로 이중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최근 제73회 베를린 국제 영화제 베를리날레 스페셜 부문에 초청, 레드카펫을 밟았다. 드레스 대신 턱시도를 입고 등장해 시선을 끌었다. 일타스캔들 제작발표회에서는 청바지를 입었고, 인터뷰 때는 형광색 맨투맨에 진주 목걸이를 걸쳤는데도 멋스러워 보였다. "운동을 워낙 좋아한다. 예전엔 운동을 많이 하다가 다쳐서 필라테스만 한다"며 "이번에 베를린을 처음 가봤다. (다른 영화제와 달리) 드레스업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 '그럼 드레스 말고 다른 걸 입어보자'고 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어느 덧 데뷔한 지 34년 차다. 자신을 롤모델로 꼽는 후배들에게 조언도 잊지 않았다. "연기관이요? 가르쳐주면 할 수 있나요?(웃음) 사실 연기관은 없다. 나의 행보가 여배우들에게 굉장히 비전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뭔가 되어진 모습보다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이 친구들이 알까 싶다. 난 굉장히 완벽주의자이고, 일을 치열하게 한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저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라고 했으면 좋겠다. 뭔가 되어진 모습은 글쎄…. 그런 모습이 그 친구들이 존경할 만한 모습인지는 모르겠다. 그냥 되어지는 게 없으니까. 가르침은 아니다. 내 딸한테도 '내가 어떻게 했어'라고 말하기 보다, 보여주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제이홉 '온 더 스트리트' 英 싱글차트 37위…자체 최고

韓 솔로 가수 중 해당 차트 '데뷔 순위'로도 최고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29·정호석)이 새 솔로 싱글 '온 더 스트리트(on the street)'(with J. Cole)'로 미국 빌보드와 더불어 세계 양대 팝 차트로 꼽히는 영국 오피셜 차트 싱글 톱100에서 40위 안에 진입했다.

10일(현지시간) 오피셜 차트에 따르면 제이홉의 싱글 '온 더 스트리트'는 이번 주(10~16일) 싱글 톱100 차트에서 37위를 기록했다.

제이홉은 해당 차트에 솔로로서 세 번째 진입했는데 '온 더 스트리트'가 자체 최고 성적이다. 2019년 라틴계 미국 가수 베키 지와 함께 한 '치킨 누들 수프(CHICKEN NOODLE SOUP)'가 82위, 지난해 발매한 첫 공식 솔로 앨범 '잭 인 더 박스'의 선공개곡 '모어'가 70위를 차지했다. '잭 인 더 박스'는 오피셜 앨범 차트 '톱 100'에 67위로 진입했었다.

특히 한국 솔로 가수 중 해당 차트에 최고 순위로 데뷔했다. 한국 솔로 가수의 곡 중 발매 첫 주 처음 톱40에 진입한 곡이기도 하다. 또 제이홉은 가수 싸이('강남스타일'·'젠틀맨'·'댓댓')와 함께 '톱 100'에 한국 솔로가수로서 최다 노래(3곡)를 올리는 기록도 썼다.

'온 더 스트리트'를 협업한 미국 래퍼 제이콜은 오피셜 싱글 톱40에 아홉 번째 진입했다.

'온 더 스트리트'는 로파이 힙합(lo-fi hiphop) 장르다. 듣기 편한 멜로디와 따뜻한 가사가 조화를 이룬다. 제이홉이 작사, 작곡에 참여해 노래에 희망의 메시지와 온기를 불어넣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공개되는 18일 자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도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범, '한국 힙합 어워즈' 올해의 아티스트

국내 장르 음악 전문 시상식 '한국 힙합 어워즈(Korean Hiphop Awards·KHA) 2023'에서 힙합가수 겸 프로듀서 박재범이 주인공이 됐다.

박재범은 지난 10일 오후 유튜브 채널 딩고 프리스타일(dingo freestyle)이 중계한 '한국 힙합 어워즈 2023'에서 '올해의 아티스트'가 됐다.

박재범은 지난해 자신이 이끌던 힙합 레이블 '에이오엠지(AOMG)', '하이어 뮤직(H1GHR MUSIC)' 수장 직을 내려놓고 레이블 '모어비전(MORE VISION)'을 설립하는 등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해왔다. 작년 3월엔 톱 가수 아이유가 피처링한 '가나다라(GANADARA)'를 발매하기도 했다.

래퍼 겸 프로듀서 딥플로우(Deepflow·류상구)가 이끌어온 힙합 레이블 '비스메이저 컴퍼니'(Vismajor Company·VMC)가 '올해의 레이블'로 꼽혔다. 이 레이블은 지난달 레이블 콘서트를 끝으로 해산했다. 다시 크루로 돌아가 회사를 정비한다.

'올해의 컬래버레이션'은 얼터너티브 케이팝 그룹 '바밍타이거'와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RM(김남준)이 협업한 '섹시느낌'이 차지했다. 바밍타이거는 '섹시느낌' 뮤직비디오로 일본인 영상감독인 페나키 디렉터와 함께 '올해의 뮤직비디오'도 받으며 2관왕을 안았다.

하이브, '시장 과열'·'승자 저주' 피했다…SM 인수중단 '합리적'

"플랫폼 협업 방안에 대해 합의" 등 실리도 챙겨

방시혁 의장이 이끄는 하이브(HYBE)가 'K팝 개척사'인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인수 절차를 12일 중단한 것에 대해 K팝 업계는 '합리적 선택'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SM 경영권을 인수를 두고 카카오와 극하게 날을 세워 온 하이브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는 '치킨 게임'으로 양 측 다 내상이 클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특히 SM 주가가 15만원 안팎을 오가는 등 급등하면서 1조원대라는 천문학적인 출혈이 예상됐고, 이로 인해 SM 경영권을 어느 쪽이 확보하든 '승자의 저주'도 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한 공개매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뒤 시장에서는 하이브의 대항 공개매수 참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도 보였다. 경영권 분쟁이 계속될 경우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SM에 대한 소액 투자자들 중 일부의 '빚투'도 늘어나고 있었다.

이미 SM 주식은 고점에 달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누가 인수하든 통합 과정에서 막대한 유무형의 리소스 부담과 함께 단시간 내 매출 증대와 사업적 시너지 측면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하이브는 현 상황에서 SM 가치가 자체 산정한 기준을 넘어섰고, 자사 주주가치 등을 고려해 인수를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하이브가 합리적 선택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양 측 이미지에 큰 타격이 우려됐다. 카카오는 하이브의 SM 공개매수 과정에서 지분을 대거 취득해 금융감독원(금융위)이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사안을 검토 중이었다. 하이브가 SM 경영권을 인수하면, 국내에서 K팝 산업을 독과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도 사안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하이브가 SM 인수 절차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금융위와 공정위 건은 부담을 덜게 됐다.

그런데 협상에 중요한 건 명분보다 실리다. 어떤 결론을 도출하든 감정 싸움까지 비화한 상황인 만큼,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선에서 협의를 마무리지어야 하는 게 수순이다.

하이브는 카카오와 플랫폼 협업 방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며 자사의 지식재산권(IP) 유통 판로 다각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는 현재 카카오와 IT 플랫폼 라이벌인 네이버와 동맹을 맺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조율해나갈지가 관건이다.

더글로리2 공개직후 세계 3위…전세계 주목

넷플릭스 한국 시리즈 '더 글로리'가 파트1에서 신드롬을 일으킨 데 이어 파트2도 공개 즉시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다.

12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순위 집계 차트 '플릭스 패트롤'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공개된 '더 글로리' 파트2는 전날 기준 넷플릭스 '톱 TV 쇼(TOP TV Shows)' 부문에서 세계 3위에 오르며 또 흥행을 예고했다.

국가별로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대만, 볼리비아, 칠레, 베트남 등 26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파트2를 통해 공개된 9~16회에선 대본을 집필한 김은숙 작가의 예고대로 '사이다 복수'가 이뤄져 호응을 얻었다. '학교 폭력'(학폭)에 대한 경종을 울린 이 작품은 한국 사회는 물론 태국 등 해외에서도 학폭의 심각성을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특히 문동은 역의 송혜교, 주여정 역의 이도현, 박연진 역의 임지연 등 모든 배우들이 호연하며 캐릭터 이름으로도 크게 주목 받았다.

다만 '더 글로리'는 파트 2 공개 당일 안길호 PD에 대한 학폭 의혹이 제기돼 호평에 대한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안 PD는 필리핀 유학 시절에 학폭이 있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안 PD의 전 여자친구 등의 증언도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